

#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教會\*

橋本龍三

(日本神戸改革派神學校 校長 · 實踐神學)

베드로전서 2:10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라고 말씀하셨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異邦人의 그리스도인도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教會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教會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理解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重要的 課題라 하겠다. 신약 성경에는 教會를 여러 가지로 表現하고 있다.

폴 마이니어(Paul S. Minear)는 1960년에 「新約에 있어서 教會觀」(Images of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란 책에서 新約聖經에서 비유로 表現된 것을 조사해서 教會에 해당하는 用語를 100개 이상이나 發見하였다. 이것은 教會란 用語가 얼마나 풍부한 내용으로 表現되어 있는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教會의 生命은 多方面으로 表現

\*본고는 1979년 9월 고려신학대학에서 행한 특강을 옮긴 것이다.

되고 있다. 마이니어는 그것을 Major images 혹은 Minor images로 구분해서 Major images로 다음의 4가지를 들고 있다.

- (1) 하나님의 백성(People of God)
- (2) 새롭게 지음받는 것(New creation)
- (3) 信仰에 있어서의 交際(The fellowship in faith)
- (4) 그리스도의 몸(The body of Christ)

이런 말들은 어느 것이나 우리들에게는 친근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時代에 따라 或은 教派에 따라 表現方法에 相違點이 있었음을 否定할 수 없다. 「하나님의 권속」(The household of God)의 著者인 뉴비긴(Lessie Newbigin)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教會에 강조점을 두고, 오순절파(pentecostal)는 聖靈의 交際로서의 教會에 강조점을 두는 반면 歷史的 프로테스탄트 教會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教會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改革派 教會는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教會라는 뜻에서 教會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實際 組織神學, 教義學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表現 或은 그 理念이 취급되어 있지 않다. 卽 벌코프(L. Berkhof)의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에서 教會에 對한 聖經的 定義에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聖靈의 殿’, ‘새 예루살렘’, ‘眞理의 기둥’, ‘眞理의 터’ 등이 列擧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聖經 가운데 卽 히브리서의 基本思想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 것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教會’는 聖經中에 큰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칼빈도 教會를 ‘契約의 백성’으로 취급했고 契約에 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승되고 連續됨을 明白히 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教會’라는 문제가 20세기에 들어와서 特히

로마 가톨릭 신학과 W.C.C.의 신학에서 脚光을 받고 있는 事實에 눈을 돌려 볼까 한다. 그것을 문제삼고, 或은 문제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파악이 바른지 아닌지를 문제삼기 위함이다. 또한 20世紀 후반 특히 로마 가톨릭과 W.C.C.側에서 發展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학’의 特有性を 明白히 하고자 한다. 로마 가톨릭 教會는 종래 教會論을 道成人身에서 취급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性格을 띄게 된 데 특징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第二次 바티칸 公議會 以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教會에 대해 強調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第二次 바티칸 公議會의 成果의 하나로 教會의 憲章을 들 수 있다. (Constitutio Dogmatica de Ecclesia, 1964.11.21)

第二章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한 章이며, 第三章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信徒에 對하여’ 한 章이 취급되었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祭司職, 豫言職, 王職에 參與할 수 있다고 말한다.

七章은 ‘순례하는 教會의 終末의 性格 乃至 天上의 教會의 一致에 關해서’라는 題下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례하는 教會가 取扱되어 있다. 1967년 독일 튜빙겐 大學의 한스 쿡(Hans Küng) 교수는 「教會」(Die Kirche)라는 著書를 刊行했다. 같은 해 英譯으로 出版되었고 日本語譯도 1970년에 出版되었다. 그 第三部는 教會의 基本構造에 對하여 취급되어 있는데, 그 第一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教會’를 취급하고 있다. 第二章은 ‘靈的 被造物으로서의 教會’이며 第三章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教會’이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教會는 教會論中에 중요한 支柱로서 定着되어 있다. 로마 가톨릭 教會의 教會論의 展開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教會라는 문제가 클로즈업되었는가를 고찰해 보자. 19世紀에 로마 가톨릭 신學者間에 프로테스탄트의 教會論

에 대해서 強한 批判이 나왔다. 그것은 프로테스탄트 教會論과 그 영향으로 教會의 神的 生命, 內的 生命의 이해가 상실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튜빙겐의 밀러(Möhler)에서 시작, 쉬벤(Scheeben)과 뉴만(Newman) 등에게 계승되어 왔다. 第一次大戰後 그것을 解明하기 爲해서 教會의 신비를 어떻게 表現할 것인가를 칼 아담(Karl Adam)과 로마노 칼디니(Romano Kardini) 등의 貢獻을 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신비적인 몸’(Mystical Body Phase)으로서 性格지워지고 있으나 (1920-1943), 그것은 Pius 교황의 回刺(Mystici Corporis)에 表現된 것이다. 그러나 戰後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教會像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教會를 表現하는 것이 보다 더 全體的이며 包括的이라는 神學者가 많아졌다. 이 成果가 公議會의 第二章의 內容으로 나타나 있다. 가톨릭계에 잘 알려진 이브 콩가르(Yves Congar) 신부는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같이 언급하고 있다.

教會憲章의 第一章 ‘教會의 秘儀’ (The mystery of the church)는 教會의 神的 原因(divine cause), 三位一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의 道成人身을 보여주고 있다. 教會의 비전을 그리스도의 神秘的 몸으로서 具體化하고 있는 것은 이 章이다. 이 章에 이어서 第二章에는 “이 教會가 人類의 역사에 있어서 實現되는 過程의 또 하나의 局面을 보여주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生의 充實, 即 教會가 그 證人이며 聖禮典의 표상인 生의 充實을 인류에게 전파하는 教會를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教會의 表現 或은 教會像은 職責의 相異에 선행하여 하나님의 백성 全體에 依해 나타난 教會存在의 一般的 尊嚴성을 說明한 것이다”(Rowell Congar, *The Church: The People of God*, p.42). 이 말에서 理解되듯이 가톨릭 教會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教會를 理解하므로 教會를 敎權體制(hierarchy)와 同一視하는 생각을 克服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가톨릭 教會論에 있어서 큰 變化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教會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해함에 있어서 한스 킹은 그의 著書 「教會」에서 다음과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教會를 聖職者 階級과 同一視하는 것은 문제 밖이다. 教會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해한다면 거기서 밝혀지는 것은 教會는 결코 한 階級 한 階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의 共同體 안의 特定階級이나 徒黨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教會는 세계 어디서나 어떤 時代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全體이며 全教會이며 믿는 사람들의 全共同體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教會가 事實上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教會와 一般信者를 區別한다는 것은 絶對로 허용되지 않는다. 萬一 허용된다면 一般信者는 충분한 意味에서 벌써 백성(λαος)이 아닌 것이다.(p.197)

教會 憲章 第三章 '信者에 관해서'에도 注目할 가치가 있다. 信者란 '거룩한 聖職을 받은 者나 教會 안에서 인가된 修道者 身分에 속한 자 以外的 모든 크리스찬을 가리킨다'고 한다. 이것은 歡迎할 만한 말이다. 또한 '洗禮에 依하여 그리스도와 聯合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各己 自己 위치에서 祭司職, 豫言者職, 王職에 참여하는 者가 되며 教會와 世界에서 信者 自身의 本分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 全體의 使命을 다하는 기독교자'라고 한다. 이 基督者의 職責을 가진 자로서의 使命의 自覺, 特히 그리스도의 三職과의 關係에서 이해하고 있는 점은 높이 評價해도 좋을 것이다. 事實 많은 가톨릭 以外的의 사람들이 이렇게 評價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Wislof)

그러나 信者의 第一의 條件을 信仰告白에 두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洗禮란 성례전을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는 이유로 하고 있다). 또한

教會憲章 4장 36절 信徒와 聖職者와의 關係의 條項에서 권하고 있는 順從에 관해서 말한다면 앞에 말하고 있는 것과 別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욱 本質的인 點에서 가톨릭이 變化되는 것은 현단계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에드먼드 클라우니 (Edmund P. Clowney)교수는 그의 「教會論」 (The doctrine of the church)에서 한스 킹에 의해서 代表되는 새로운 教會論의 展開를 로마 가톨릭 思想에서 聖書研究와 高等批判의 成果로 생각함과 同時에 이러한 傾向이 로마 가톨릭을 에큐메니칼 운동과 結合시키는 點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지적은 重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傾向은 소위 教會의 社會化라고 불리는 傾向과 結合되어 있는 點을 지적한다.

그것은 '救援의 個人的 概念에 대한 항의이며', '個人的 속죄보다 社會의 속죄를 호소'한다. Clowney 교수의 말을 빌리면 "이 原理는 종종 개개인의 속죄보다는 社會構造의 속죄에 적용된다. 壓制的 社會構造는 모든 勢力, 權力, 그리고 이 世上的 요소(element)와 同一視된다. 이러한 諸勢力들은 그리스도의 勝利로서 克服되고 代贖되었다. 그들은 머리(頭)로서의 그리스도에게 뭉쳐져 있다. 教會와 政治 社會의 諸勢力들의 투쟁이라는 公的 임무(public ministry)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見解에 따르면 連帶의 表現, 教會의 公的 社會的 任務는 知性主義의 信條形式이나 教會의 領域에 관한 좁은 개념에서 展開되는 政治的 敎理的 形態에 限定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教會가 새 사람의 첫 열매를 보이는 社會的 連帶에 依하여 再認識될 때 거기에 나타나는 주요한 面은 世界教會의 行動과 社會的 行動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에큐메니칼 運動은 敎派로 나누어져 있는 여러 教會들보다 더 信賴할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 教會는 에큐메니칼적 인 양상보다는 敎權體系的인 業務의 必要性을 강조한다. 그러나 저들

도 教會一致의 임무(Unitive ministry)로서 社會的 機能의 敎理를 展開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W.C.C. 신학의 결실인 社會化라고 불리는 教會論에 눈을 돌려야 한다. W.C.C.의 職制委員會報告(1966)에 다음과 같은 文句를 볼 수가 있다. “새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復活로 因하여 모든 사람이 새로운 人類의 一員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教會에 加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인가 아닌가를 신중히 질문해 보아야 한다. 오히려 教會는 비록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 인류에 벌써 속한 者로서 사람과 教會를 受容하고 새로운 계약의 일군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信仰은 보이지 않는 증거(Evidence)이기 때문이다.”

이 立場의 사람에 있어서 구원은 個人的인 것이 아니고 集團的인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平和는 現實化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所有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生成되어지는 것이다. 平和는 社會的 事件(Social happening)이며 人格關係에서 일어나는 事件이다. 教會는 救援에 의해서 世界로부터 區別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世界의 救援의 意識에 의해서만 區別되어지는 것이다.

이와같이 에큐메니칼 運動의 社會論에 있어서 教會의 이 世上과 連帶性이 強調되어 있다. 1954년에 W.C.C.의 에반스톤 大會에 있어서 ‘教會와 世界의 希望’이란 테마가 ‘세계의 希望인 그리스도’라는 테마로 바뀌어졌다. 教會에는 個人的 希望은 없다. 1961년의 뉴델리 大會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삭제되고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뀌어졌다. 이와 같은 變化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教會의 이해는 어떻게 관계되는가? W.C.C.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教會에 觀點이 일치되어진 것은 에반스톤 大會 以來의 일이다. 그것은 信徒論의 展開와의 관계에서 攄급되었다. 에반스톤에서 發足한 6個部署(一致, 宣教, 社會, 國際關係, 人種, 信徒)의 하나

로서 信徒部가 設定되었다. 에반스톤에 있어서 信徒의 의의가 強調된 것은 從來부터 있었던 信徒論에 새로운 빛을 던져 주게 된 것이다. 이것은 教會의 內部에 있어서 信徒의 活動과 權限을 增大시키려는 것이 아니며 教會 밖에서 되어지는 여러 종류의 信徒運動을 振興시키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信徒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하고 信徒가 每日의 生活을 營위하고 있는 이 世上 現實的인 場所에서 그리스도의 聖業을 봉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다(The growing emphasis upon the role of the laity springs from the rediscovery of the true nature of the church as the people of God. Evanston Report., p. 161). 教會를 건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敎職者의 일로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教會를 聖徒의 교제로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을 爲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선택되어 또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해하는 것에 W.C.C. 信徒論의 강조점이 있다. 칼 바르트(Karl Barth)는 예수 그리스도의 教會는 이 世上을 爲해서 存在한다고 말하고 世上을 爲해서 存在하는 教會를 강조했다. (Die Gemeinde Jesu Christi ist für die Welt. K.D., IV/3)

이 세상을 위해서 있는 教會, 他人을 爲해서 있는 教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教會를 理解함에 있어서 강조점이다. (The church for others, W.C.C., 1967)

따라서 전도는 政治的 社會的 行動으로서 理解되어진다. W.C.C.의 보고서 중에 ‘전도 사업에 대한 신학적 해석’(A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work of Evangelism)이라는 文據이 있는데 그 가운데 “基督敎의 힘이 惡한 狀態에 있는 개인에게 자비로써 改良하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不充分하다. 不義가 克服되도록 社會의 構造가 變革되게 協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教會는 靈的 훈련이 아니고

혁명에 의한 社會構造의 改革이라고 한다. 여기서 世俗化的 神學, 革命的 神學, 解放의 神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앞에 말한 바와같이 改革主義는 特히 敎會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해하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이해할 때 上述한 社會化는 불가피적인 결론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敎會를 이해하는 뜻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못할 때 敎會의 宣敎 문제에 至大한 영향을 초래한다. 끝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배이며 하나님의 所有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敎會를 特徵지우는 것은 敎會가 하나님의 보배이며 하나님의 所有라는 데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보배로서 혹은 所有로서 장식품처럼 두어 두는 存在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敎會는 單純한 集團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本來的 자세는 하나님 앞에 모여진 사람, 하나님 앞에 모이는 集團이다. 敎會를 意味하는 회랍語의 에클레시아(εκκλησια)는 七十人譯에서는 히브리어의 카할(קהל)의 譯語로 使用되었다. 이 카할이란 말과 흡사한 말로서 에다(עדה)란 말이 있다. 에다란 모여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會衆의 集團을 의미하지만 카할은 實際로 모여 있는 會衆을 의미한다. 그런고로 民數記 14:5에 에다와 카할이란 표현이 같이 나오고 있다. 카할이 에클레시아로 번역된 것은 정확한 번역이다. 왜냐하면 에클레시아(εκ + καλεω)도 부름을 입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新約用語法에 여러가지 用法이 있으나 고린도전서 14:19,28에는 敎會를 모임(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의 用法에는 의미가 있다. 申命記 4:10에는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고 命했다. 또 “하나님 앞에 섰던 날”이라고 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여진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의의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모임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申命記 33장 序頭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山에서 비취시고 一萬 聖徒가운데서 降臨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 같은 律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手中에 있으며 主의 발 아래에 앉아서 主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聖會에 설 수 있는 者는 모두가 聖別된 聖徒이다. 시온山에서의 성회는 히브리서 12장에 新約敎會를 表現하는 데 使用되고 있다.(히브리서 12:8-24)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 만한 불붙는 山과 검은 구름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山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都城인...”이라고 했다. 우리를 모으시는 것은 하늘의 모임이다. 여기에 새 契約의 仲保者인 예수께서 계시는 모임이다.

그리스도의 敎會는 이와같은 모임으로 成立되고 있다. 天國의 모형이라는 모임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야말로 新約의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다. 五旬節에 敎會에 聖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存續한다는 것을 보이는 사건이다. 여호와와 두 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으니 거기에 天國이 實際로 存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바울이 이 여호와와 임재 앞에서 “우리의 主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者들에게”(고전 1:2)라고 한 것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敎회를 지칭한 것이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성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중에 임재하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15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예언을 하는 데서 異敎徒들이 진실로 당신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告白하여 하나님을 높인다고 한다.

바로 여기에 敎會가 存在한다(고전 14:25; 사 45:14). 主께서 계

신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다. 두 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반드시 주께서 임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미存在하고 있는 백성이 하나님께 이끌려 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심으로 성립되어진 것이다. 神政政治는 國家主義(Nationalism) 위에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神의 契約는 個人과의 체결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部族이나 民族과의 契約도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속죄의 役事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과 공홀로써 存在하는 것이다. 앞서 考察한 로마 가톨릭의 ‘하나님의 백성’ 神學이나 W.C.C.의 ‘하나님의 백성’ 神學은 보편 구원설에 기초했음이 明白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教會는 하나님의 백성이 萬民 中에서 선택되었다는 성별, 選擇의 原理를 明白히 나타내고 있다. 시내山에서의 聖會에 있어서 하나님은 王으로 임했다. 이스라엘의 部族이 다 모였을 때 여호와와는 여수론에서 王이 되었다. (신명기 33:5)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라 했다. 出애굽記 19:6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祭司長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했다. 이 하나님의 支配는 이스라엘에게 限定되지 않고 世界的인 것이다. 여기에 확실히 밝혀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主權이 모든 백성 위에 비친다고 한 것은 萬民이 이스라엘이 받는 祝福을 共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點이다. “왕이여 王은 列王의 王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權勢와 能力과 榮光을 王에게 주셨고”(단 2:37) 라고 함과같이 하나님의 王國은 모든 王國 위에 있다.

그러나 또 地上의 王國을 쳐서 覇하시는 하나님이다(단 2:44).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者에게만 축복을 주신다.(단 7:27)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공홀에 依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 自身에 있다. 하나님의 選擇의 目的은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선택이다. 그리하여 世上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爲해서 선택된 것이다. 選擇의 根據, 선택의 目的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使用하기 爲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靈的으로 함당하여 選擇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最大의 目的은 백성을 利用하기 爲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所有하기 위함이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부르심은 이 世上에 대한 부름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있어서 自身을 爲해 選擇된 백성을 通하여 세계를 새롭게 하신다. 確實히 우리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란 것은 主의 仲保者로서의 기도 가운데서도 명백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通해서 米로소 세상에서 섬기는 者로서의 選擇과 부름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

#### 〈보충〉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한스 쾅(Hans Küng)이 지적한 점을 보충하면,

- a. 모든 믿는 者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教會를 教權體制와 同一視하는 것은 問題 밖의 일이다.
- b.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教會를 私事化하는 것은 문제 밖의 일이다.
- c. 모든 사람은 人間的 決斷을 通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教會의 實體化는 문제 밖의 일이다.
- d.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歷史的 백성이다. 教會의 理念化는 問題 밖의 일이다.